

국회정상화 물고뒀지만... 1월 국회 '산넘어 산'

'비선의혹' 운영위 소집·자원외교 국조 등 일괄타결 불구

'문고리 3인방' 출석·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격돌 불가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24일부터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3법이 이날 국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128개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 내년 임시국회 역시 협력이 예상된다.

우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출석 대상자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운영위 당연 출석 대상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외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정호성·안봉근 제1·2부속비서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새정치연합은 당연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도 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지만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정환 경제부총리까지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 유령무실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대타협기구에 전국공무원노조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3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도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운영위 소집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일정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우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

투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조특위 국조요구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두 특위의 활동기간을 이날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두 특위는 활동기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4~5월)까지는 활동을 매듭지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하도록 하

고,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했다. 대타협기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새정치연합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일 비대위원' 박원순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회의에 '1일 비대위원'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윤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지원, 문재인 의원 꺾고 1위

새정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대의원 여론조사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맹주'인 박지원 의원이 '친노그룹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을 꺾고 1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선거인단 중 대의원 비율이 45%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을 상대로 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박지원 의원이 31.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문재인 의원(24.4%)과 정세균 의원(17.3%) 순이었다. '기타 후보 및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7.2%였다.

지역별로는 박 의원이 호남(23.7%)을 비롯한 서울(40.8%), 경기·인천(32.0%), 충청권(32.7%) 등 수도권권을 포함한 호남·충청권에서 1위에 올랐다. 문 의원은 대구·경북(44.8%)과 부산·울산·경남(37.7%)에서 박 의원을 꺾고 1위에 올랐으며, 서울(18.4%), 경기·인천(24.8%), 충청권(28.0%) 등에서는 박 의원에게 패했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문 의원 32.6%, 박 의원 28.3%, 정 의원 14.7% 순이었으며, '기타 후보 및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4%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22일 전국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 1009명과 권리당원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대의원 19.4%, 권리당원 8.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야권 신당론' 경제

송년 회견서 "명분·에너지가 있는지 의문"

이낙연 전남지사가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당·분당론'과 관련해 경제계를 타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송년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 신당설 얘기가 나오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신당을 꾸릴 만한 명분이 과연 무엇인지, 신당이 될 만한 국민적 에너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명분과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2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의원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문 의원 역시 신당·분당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보진영 105명 '국민모임'... 정치세력화 선언

'진보 급진파'가 배제된 각계 각층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진보 정치' 복원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세력화에 나서 주목 받고 있다.

'국민모임'(약칭 국민모임)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적, 계파와 소속을 넘어 연대, 단결해 '평화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롭고 제대로 된 정치세력의 건설에 함께 앞장서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국민모임 선언에는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 등 학계 32명, 명진 스님 등 종교계 22명, 정치영영화감독 등 문화예술계 20명, 전남기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 언론계 11명,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3명 등 모두 105명이 참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빅3'는 없다"... 후위그룹 당권행보 박차

박주선·김동철 '단일화' 勢규합

조경태·이인영 바다민심 공략

'反 빅3' 연대 분위기도 확산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대표 후보 등록(29~30일)을 앞두고 '빅 3'(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의 그늘에 가린 후위 그룹 지지자들이 반전의 계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위 지지자들은 '빅 3'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불출마한다면 후보 압축(컷-오프)을 통한 당

권 주자 세 자리 가운데 한 석을 차지,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에 지역구가 있는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1차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빅 3'를 제외한 당권 주자들과의 최종 단일화를 성사, 극적인 승리의 드라마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단일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말 이전까지 단일화 방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도,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의 투표 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박 의원과 김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양보하는 형식의 '담판형 단일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고 있는 민집모 소속인 조경태(46) 의원의 행보도 후보 단일화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그는 '빅3'에 맞서는 후보 단일화보다는 당권 도전의 '완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6그룹(60년대 출생, 80년대 운동권)의 대표격인 이인영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발목을 팔며 바다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운

동권 그룹을 바라보는 민심의 눈길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 잠재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24일 '빅 3' 불출마를 촉구하는 '서명파' 의원 등 당내 인사들과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말에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추미에 의원도 당권 도전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추 의원 측에서는 '빅 3'에서 한 사람이라도 불출마 한다면 출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빅 3' 불출마를 요구하는 서명파 의원들은 '빅 3'가 끝내 출마한다면 후발 그룹에서 한 사람을 대표주자로 세워 우선 컷-오프를 통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636 **결고** **민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번호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 걸면 기존에 설정해둔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VO 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眞서안영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선자들이(주)클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일디자이너,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010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